

동생 돌보느라 학교 못간 소녀, 70년 만에 입학

목포제일정보중·고 부설 평생교육원 입학식

초등 158명·중학 44명 등 총 202명
79세 박옥순씨...71세 동생은 中 진학
김혜진 교장 "배움 통해 자신감 얻길"

"글을 배우고 키오스크나 휴대전화 사용법을 익히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배움의 때를 놓쳤던 만학도들이 인생 후반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9일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6일 배움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은 초등 문해 과정 158명, 중학 문해 과정 44명 등 총 202명이다.

초등 문해 과정은 학습자 수준에 맞춰 3단계로 운영되며, 주 3회 출석해 읽기와 쓰기 등 기초 교육을 받는다.

중학 문해 과정은 초등 학력을 취득한 학습자가 진학할 수 있는 3년 과정으로 역시 주 3회 수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지난 6일 배움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늦깎이 신입생들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신입생은 초등 문해 과정 158명, 중학 문해 과정 44명 등 총 202명이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제공>

업이 진행된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70여년 전 가난과 책임감 탓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자매의 사연이 전해져 잔잔한 감동을 안겼다.

초등 과정 최고령 입학생인 박옥순(79·여)씨는 어린 시절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씨는 젖먹이 동생을 포대기에 업고 학교에 갔지만, 어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 교실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하다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를 그만뒀다. 당시 박씨는 어린 동생의 등을 두드리며 "너 때문에 내가 학교를 못 간다"며 원망 섞인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웃음박사' 김영식 교수 광주도시공사 초청특강



'웃음박사' 김영식(GITC 국제대학 부총장·사진) 교수가 광주도시공사의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초청특강을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5·6일 장흥군 일원에서 변화와 발전을 주제로 각 분야별 임직원 대상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남광주통합을 준비하고 지역 발전과 안전한 광주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웃음소통 전문가 김 교수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소통은 곧 도시발전의 바로미터이고, 이는 도시공사가 추구하는 터살기, 더 즐기, 기업하기 좋은 광주 구현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며 "인공지능(AI) 선두 도시를 만들어가는 광주시가 소통의 선두주자가 되는 데 도시공사가 앞장서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대표는 "조직 활성화는 곧 광주와 전남 지역민의 활발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기수희기자

신수임 전남대 생물공학과 교수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장 선출



전남대학교는 9일 "신수임(사진) 생물공학과 교수가 전국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이하 국여련) 회장으로 선출돼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여련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여교수회 간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고등교육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연합 단체다.

신 교수는 임기 동안 회원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여성 교수의 연구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현재 전남대 여교수회 회장으로 대학 내 여성 교수의 권익 증진과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교수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활동을 주도하며 대학 내 협력과 소통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수임 교수는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겠다"며 "여성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선옥기자



광주은행, 전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원 기탁

전남도는 9일 "광주은행이 정일선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금 3천만원을 전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은행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나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정일선 은행장은 '전남도 국립의대 부속 병원 설립 지원사업' 지정기부사업에 500만원을 기부하며 해당 지정기부사업의 첫 고객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은행장은 개인 고객 기부자로서 전남도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에

도 헌액됐다.

정일선 은행장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뜻깊다"며 "전남도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한 광주은행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 의료 기반 확충과 노인 복리 증진을 위해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시원기자



전남 K-에듀센터·美 애틀랜타총영사관 '교육 협력'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남 글로벌 K-에듀센터가 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한 몽고메리 한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센터의 주요 교육사업을 안내하고 현지 지역사회와 협력 계획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몽고메리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이준호 총영사관, 조창원 동반부한인연합회 이사장, 백도현 몽고메리 한인회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 한인들이 자리했다.

K-에듀센터는 지역의 특화된 교육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남 글로벌 교육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글로벌 교육 정책 개발 ▲교사·학생 대상 연수 프로그램 ▲한국문화 흥

보 등 다양한 사업을 공유했다.

특히 전남 특성화고와 미국 현지 한인기업을 연계한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밝히며,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구용혁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총영사관과 몽고메리 지역 한인사회의 관심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전남의 학생들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구례군 '제18기 농업인대학 소득작목반' 개강

구례군은 "최근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교육생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제18기 구례군 농업인대학 소득작목반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개강식에서는 (사)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 김민환 박사가 '유통시장의 변화와 농산물유통 대응전략'을 주제로 특강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지역 농업인

의 전문성과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종기자

서배실 전문건설 전남도회수석부회장 '행안부장관 표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서배실 수석부회장이 지역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9일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의에서 강성진 회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해 서배실 수석부회장에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배실 수석부회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경영을 실천하며 각종 사회공헌 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대한전문



건설협회의 전남도회 수석부회장으로서 협회 발전과 회원사 권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임재민기자

호남대 HUSS, 2026년 3차년도 사업설명회

호남대학교 글로벌 평생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단(HUSS)은 9일 대학 4호관 1층 소강당에서 '2026년 3차년도 HUSS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HUSS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5개 학과(경영학부·관광경영학과·글로벌한국어학과·교양학부·토목환경공학과) 재학생 10여명과 송창수 단장·강현주 부단장 등 교수진들이 참여해 지난 1, 2차년도의 사업 성과와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HUSS 사업의 방향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호남대 HUSS는 2024년 6월부터 33개월 간 총 90억원을 지원받아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선문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총 5개 대학과 협력해 글로벌 공생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자원 대응력, 산업 이해력, 국제 사회 포용력을 갖춘 핵심 융합인재 2천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광주시, 봄철 미세먼지 대응 합동 캠페인

광주시는 9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알리고 생활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외출 자제 및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실내 공기질 관리, 대중교통 이용 확대,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등 생활수칙이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은 행정의 노력과 시민들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는 등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